【中國學論叢】第 六十七 輯 ISSN: 1229-2540

‘古’의 時代區分 考察
—《說文解字》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解釋

- 이경숙(李鏡淑), 문치웅(文致雄) -

韓國中國文化學會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www.chinaculture.or.kr
2020年 9月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Vol.67 (2020)

‘古’의 時代區分 考察
—《說文解字》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에서의 의미 解釋

이경숙(李鏡淑), 문치웅(文致雄)**

▷ 目 次 ◁

Ⅰ. 緖論
Ⅱ. ‘古’의 時代區分 .
Ⅲ.《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의 ‘古’解釋
Ⅳ. 結論

Ⅰ. 緖論

시대에 대한 분류나 해석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학문 분야라고 하여도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漢語語音史, 漢語語法史, 漢語詞彙史 등을 연구하는 漢語史라는 과목을 1954년 처음으로 북경대학에 신설한 한어 연구사의 창시자인 王力이 한어의 내부 규율 변화 상황에 따라서 先秦 시기부터, 兩漢魏晉南北朝唐宋元明淸, 現代漢語까지, 漢語史를 上古(3세기 이전, 4세기는 과도기), 中古(4세기부터 12세기, 12-13세기는 과도기), 近代(13세기부터 19세기,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19년 5.4운동까지 과도기), 現代(20세기 5.4운동 이후부터)의 네 개 시기로[1] 나누었는데, 이후 많은 쟁론과 더불어, 관련 논문도 수십 편

**이경숙(李鏡淑)/公州大學校/講師(제1저자), 문치웅(文致雄)/홍익재단/연구센터장.
1) 郭錫良, <漢語史的分期問題>,《語文研究》, 2013年, 1-2pp.

이상이 나왔다. 周祖謨는 上古前期(기원전 771년 이전), 上古後期(기원전 770년부터 219년), 中古時期(220년- 588년), 近古時期(589년-1126년), 近代(1127년-1918년), 現代(1919년 이후)[2]로 나누었고, 呂叔湘는 '晩唐五代를 경계로, 漢語의 역사를 古代漢語와 近代漢語 두 단계'로 나누고, '語法와 詞彙는 秦漢 이전은 古代漢語, 宋元以後는 近代漢語'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외에도 漢語史를 上古(先秦兩漢時期), 中古(魏晉南北朝時期), 近代(晩唐五代부터 淸末), 現代(淸末以後)[3]로 나누기도 한다.

또, 漢語의 語音을 연구하는 音韻學에서는 "上古音은 先秦兩漢 時期의 語音이며, 주로 《詩經》의 음을 연구한다. 中古音은 兩晉南北朝隋唐 時期의 音이며, 일반적으로 《切韻》의 音을 기준으로 한다."[4] 高本漢의 《中國音韻硏究 》에서는 漢語史를 太古漢語(《詩經》이전), 上古漢語(《詩經》이후부터 東漢까지), 中古漢語(六朝부터 唐朝까지), 近古漢語(宋代), 老官話(元明)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의 역사 연구에서는 역사 시기를 原始社會(원시시대부터 堯舜禹 禪讓시대로 약4-5천년 전까지), 奴隸社會(夏부터 商 멸망 기원전 11세기까지), 봉건사회(西周부터 淸 후기 아편전쟁 1840년까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아편전쟁 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 1949년까지), 사회주의 사회(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로 나누고 있다.[5] 혹은, 遠古(약170萬年 전부터 기원전 2070年, 原始社會), 上古(夏商周秦漢, 기원전 2070年부터 220年), 中古(魏晉南北朝隋唐, 220－684) , 近古(武則天 정권의 唐부터 아편전쟁 전, 684-1840), 近代(아편전쟁 시작부터 중화인민공화국, 1840년부터 1949년까지), 現代(新中國成立 이후, 1949년), 當代(第三次工業革命이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자의 자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漢字學에서는 한자의 역사 시기에 대하여 우선, 한자 자형 형체의 변화에 따라 크게 두 단계인 古文과 今文으로 나누고, 다시, 古文을 商代의 甲骨文, 周代의 大篆(金文과 籀文포함, 과도기의 戰國文字는 蝌蚪文字를 포함하면서 古文이라고도 함), 秦代의 小篆으로 분류하며, 今文은 秦代부터 통행하기 시작한 隸書와 東漢 때 시작하여 魏晉南北朝時期에 유행한 楷書로 분류한다.[6] 다만 古文字를 연구할 때는 隸書도 古文字 연구 분야에 포함한다.

---

2) 周祖謨,《文字音韻訓詁論集》, 北京大學出版社, 2000年, 7-16pp.
3) 高娜,《現代漢語時間副詞曆時硏究》,《湖南師範大學》, 碩士, 2009年, 12-13pp.
4) 施向東, <梵漢對音資料:從上古音到中古音>,《辭書硏究》, 2020年, 48p.
5) 張傳璽,《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年, 1-2pp.
6) 高明,《中國古文字學通論》, 北京大學出版社, 1997年, 3-4pp.

이렇듯, 학문의 영역에 따라 역사적 분류는 다양한 시각과 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시기 분류법이 나올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자를 문자로 연구하는 관점과 문헌의 기록 및 역사 연구의 시기 분류를 참고하여 ‘古’에 대한 시기를 분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이른바 ‘古’에 대한 시대해석은 天皇, 地皇, 人皇으로 대표되는 三皇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堯舜 시대, 文王시대, 孔子가 살았던 시대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확실히 ‘古’가 가리키는 시간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런 까닭에 고대 문헌에 보이는 ‘古’에 대한 시간적 해석을 단순히 옛날이라고 지정하거나, 과거, 혹은 아주 오래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우리는 문헌의 상하 문맥을 탐색하고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古’가 지칭하는 시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古’시대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논문인 「‘古 ’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한 考察」[7]에서는 ‘古’와 ‘昔’의 시대적 해석을 하면서 두 글자의 의미 구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고는 ‘古’에 방점을 찍고, 기존의 논문을 참고하여 ‘古’의 시대구분과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기타 字典類의 ‘古’ 解釋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古’의 시대구분과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문헌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여야 하는 문헌에는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적인 예로 古朝鮮에서 ‘古’가 있다. 단군왕검이 건국한 나라 이름은 朝鮮인데 《三國遺事》에서는 왜 朝鮮 앞에 ‘古’를 붙여 古朝鮮이라 하였는지에 대한 문자학적인 해설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문헌상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고증하여 문헌의 특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고대 시대의 해석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시대적 배경도 연구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해석에 대하여 더 고양하고 문헌의 해독에까지 미쳐서 더욱 참신하게 문헌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

7) 李镜淑, 文致雄, <‘古’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한 考察>, 《漢文古典硏究》, 2019年. 이 논문도 ‘古’의 时代구분에 대하여 논하였다. 단지 이 논문은 ‘古’와 ‘昔’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면에 중심을 둔 논문으로, ‘古’에 대한 시대해석에 집중한 논문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여 ‘古’에 대한 시대 의미와 구분을 한층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하면 학교 교학, 시대의 이해, 바른 역사 해석과 명확한 시대 구분, 현재에 응용하는 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古'의 時代 구분

1) 上古

上古라는 것은 역사의 한 단계로서 역사 문헌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시대이다.

① 《辭源》"謂遠古之時代也. 古人本以書契以前爲上古"(여기서 고는 바로 먼 고대를 말한다. 고대인은 본래 書契 이전을 上古라고 생각했다.)[8]

《辭源》에 근거하면 近古時代는 上古時代와 같은 시대를 지칭하며, 문자를 사용하는 관점으로 고찰해보자면, 上古는 甲骨文時代 이전 書契를 사용하여 소통하던 시대를 말한다.

② 《易·繫辭傳》 "上古結繩而治."(上古時代는 結繩을 사용하여 統治하였다.)[9]

《周易》에서 말하기를 上古時代는 結繩을 사용하여 통치하였다고 했다. 이 또한 上古時代는 아직 문자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③《漢書·藝文志》"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周易의 道는 매우 심원하니, 세 분 성현의 손을 거치고, 세 개의 고대 시대를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위의《漢書》문장에서 말하는 세 분의 성현은 古의 시대구분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의 인물인 伏羲, 周文王과 孔子를 말한다. 이때, 三古란 上古, 中古, 下古를 의미한다. 《周易正義序》에 보면, "若夫龍出於河, 則八卦宣其象, 麟傷於澤, 則十翼彰

8) 商務印書館編輯部等,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1915年初次出版), 1983. 문헌의 검색은 "http://www.guoxuedashi.com/"에서 하였다. 이하의 각주에서는 文獻名을 기입하며, 검색사이트는 동일하다. 그 외 여러 사이트는 각주 참고.

9)《易·繫辭傳》

其用, 業資凡聖, 時歷三古。”(龍馬가 黃河에서 나옴에 八卦가 그 象을 펴고 麒麟이 늪에서 부상을 당함에 十翼이 그 用을 드러내서 사업은 凡人과 聖人이 모두 이용하고 때는 三古를 지났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 唐 孔穎達의 《周易正義序》에서 말하는 “時歷三古”의 三古도 上古, 中古, 下古를 합친 이름으로 문맥에 따라 가리키는 시대가 조금씩 다르나, 《前漢·藝文志》“世歷三古。”와 같이 이에 대하여 주를 한 孟康[10]은 伏羲가 上古, 文王이 中古, 孔子가 下古가 된다고 하였다.

여러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上古의 伏羲가 八卦와 六十四卦를 기획했고, 中古의 周文王과 그의 아들 周公이 卦辭와 爻辭를 더하였으며, 下古의 孔子가 十翼을 보충하여 《周易》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上古는 商代 甲骨文 이전의 시대로 三皇伏羲의 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2) 中古

中古는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上古와 近古의 사이를 말한다.

① 《辭源》“稍近於上古之時代. 謂之中古(거의 上古의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바로 中古이다.)”

《辭源》에서 말하기를 中古가 가리키는 시대는 거의 上古時代에 접근한 시대로 이를 근거로 우리는 上古 이후의 시대를 中古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②《說苑·辨物》“吾聞中古之爲醫者曰俞柎, 俞柎之爲醫也, 搦腦髓, 束肓莫, 炊灼九竅而定經絡, 死人復爲生人, 故曰俞柎。(내가 들었는데, 中古시대에 俞柎라고 부르는 명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병을 치료할 때, 환자의 뇌와 척추골을 누르고, 명치끝을 묶어, 아홉 개의 구멍을 불로 지져서 경락을 안정시켜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한다. 그래서 俞柎라고 칭했다고 한다.)”

漢 劉向의 《說苑·辨物》에서는 名醫로 알려진 俞柎가 활동한 시기는 中古 때임을 설명하고 있다.

---

10) 孟康(?-?), 字는 公休. 安平廣宗(지금 河北 威縣東)사람이며, 三國曹魏시기의 學者이다. 孟子의 十八世孫이라고 하며, 地理, 天文, 小學에 정통하였다고 한다. 주요 저술로는 《漢書音義》가 있다.

3) 近古(下古)

近古는 달리 下古라고도 하며, 三古에서 말기를 말한다.

① 《孝經注疏》"孔子爲下古。"(孔子는 下古 시대 사람이다.)

《孝經注疏》의 "孔子爲下古"란 孔子가 생존한 시대가 바로 下古時代라는 것이다.

②《史記·秦始皇本紀》:"秦幷海內, 兼諸侯, 南面稱帝, 以養四海, 天下之士斐然鄕風, 若是者何也? 曰:近古之無王者久矣。周室卑微, 五霸旣歿, 令不行於天下。(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하여 통일하고, 제후들을 겸병하고 남면하여 帝라고 부름으로써 온 천하를 돌보자, 천하의 선비들이 바람을 향하듯 앞을 다투어 찾아왔으니 이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답은 이렇다. 近古 이래로 왕이 된 자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주나라 왕실은 지위가 낮아지고 五霸는 이미 죽어 명령이 천하에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11]

《史記·秦始皇本紀》에서 말하는 近古 시대란 주나라 말기를 말함이며, 그때부터 천하는 중심을 잡아줄 왕이 없는 것과 같이 혼란한 전국시대를 겪다가 진시황에 의해 통일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史記·項羽本紀》:"然羽非有尺寸乘埶(勢), 起隴畝之中, 三年, 遂將五諸侯滅秦, 分裂天下,而封王侯, 正由羽出, 號爲霸王, 位雖不終, 近古以來. 未嘗有也.(과연 항우는 약간의 세력으로 밭에서 군대를 일으켜, 3년이 되자, 마침내 다섯 제후를 거느리고 진나라를 멸하였는데 이후 천하가 분열되고 項羽가 제멋대로 王侯를 封하니 진시황 嬴政으로 말미암아 項羽가 나타나서 霸王의 名號를 얻었지만 그 위세를 따르지 않으니 近古 이래에 없었던 일이다.)"[12]

《史記·項羽本紀》의 내용에서도 앞의 《史記·秦始皇本紀》에서와 같이 近古時代는 천하를 통치할 왕이 없던 혼란의 戰國時代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近古時代는 下古時代이며 구체적으로 孔子時代인 春秋時代로부터 멀지 않은 戰國時代를

11)《史記·秦始皇本紀》
12)《史記·項羽本紀》

말한다.

<표 1> 문헌에 나타나는 三古인 **上古, 中古, 下古의 시대 구분**

文獻	上古	中古	下古(近古)
《漢書·藝文志》	伏羲	周文王	孔子
《辭源》	書契(문자 이전 시대)		
《易·繫辭》	結繩(문자 이전 시대)		孔子
《說苑·辨物》		五帝	
《史記·秦始皇本紀》			戰國時代(近古)
《史記·項羽本紀》			戰國時代(近古)

위의 표에 있듯이 다시 정리하자면,《 辭源》과 《易·繫辭傳》에서는 모두 上古시대는 문자 이전, 書契나 結繩으로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漢書·藝文志》에서는 上古시대가 伏羲時代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는 문자 이전에 書契나 結繩 등으로 통치하던 시대임을 알 수 있다. 近古는 《史記·秦始皇本紀》와 《史記·項羽本紀》에서 통치할 왕이 없던 진시황이 통일하기 이전 혼란한 시대로 공자시대인 춘추 시대보다 밑으로 잡아 전국시대까지를 말하고 있다.

4) 其他

古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상술한 내용과는 달리 드물게 三古인 上古, 中古, 下古의 각 시기를 독립적인 하나의 古로 인식하고 三古를 적용하여 시대를 구분한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문헌의 기록들을 보겠다.

① 《禮記·禮運》"五帝爲下古" 唐 孔穎達 疏: "伏羲爲上古, 神農爲中古, 五帝爲下古。"(五帝는 下古시대라고 한다. 唐 孔穎達의 疏를 보면, 伏羲는 上古, 神農은 中古, 五帝는 下古라고 하였다.)

《禮記·禮運》에서는 上古 시대만을 古로 특정하여 그 古를 다시 上古, 中古, 下古로 나누었다. 특히 五帝의 시대를 下古로 인식하여 古의 시대를 오래 전 시기로 끌어 올렸다. 여기서는 古의 가장 먼 과거로 가면 상고를 伏羲時代까지 올라가고,

아래로는 堯舜時代까지 내려가서 설에 따르면, 古의 제한은 堯舜時代까지로 말하고 있다.

> ② 《敬齋古今黈》"前人論三古各別者，從所見者言之，故不同。然以吾身從今日觀之，則洪荒太極也，不得以古今命名。大抵自羲、農至堯、舜，爲上古；三代之世，爲中古；自戰國至於今日以前，皆下古也。(前人이 三古를 구별한 것에 대하여 말하면, 각기 말이 달라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보자면, 까마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 전은 古今이라는 이름으로 정할 수는 없다. 대략 伏羲와 神農, 堯舜까지는 上古時代이며, 三代는 夏·殷·周時代를 말하는 것으로 中古를 말한다. 戰國시대부터 現在(元)이전까지는 下古時代이다.)"[13]

위의 설명에 따르면, 元때의 李治는 古의 시대구분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대략 伏羲와 神農, 堯舜까지를 上古라고 보고, 三代인 夏·殷·周時代를 中古라고 보았고, 戰國부터 李治가 살던 元朝 以前까지의 시대를 下古時代라 하여 시대를 보다 넓혀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李治의 구분은 시대 구분을 단지 古 하나로 보고자 하는 좁은 소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진시황 때나 한나라 시기에 그 당시를 古라 하지 않았으며, 古와 그 당시의 시대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③《書斷·神品》"古文可爲上古，大篆爲中古，小篆爲下古。三古謂實，草隸爲華；妙極於華者羲、獻，精窮於實者籀、斯。(古文는 上古의 文字이다. 大篆은 中古의 文字이고, 小篆은 下古의 文字이다. 三古의 문자를 實이라고 한다면, 草隸는 華이라고 할 수 있다. 華인 草隸의 절묘한 서법가는 王羲之와 王獻之이다. 實인 고문, 대전, 소전에 정통한 서법가는 周의 史籀와 秦의 李斯이다.)[14]

唐의 張懷瓘은 《書斷·神品》에서 文字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였다. 古文를 사용하던 시기를 上古時代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古文은 주로 주나라 문자인 大篆에 속하는 金文이나 籀文 등의 문자 이전의 문자나 혹은 周 지역 이외의 문자들을 말한다. 《說文解字》에도 古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周代 이전 혹은 그 외 지역의 지방 문자까지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은 주로 周代 문자이므로 周代

13) 李治, 《敬齋古今黈》
14) 張懷瓘, 《書斷 · 神品》

를 中古로 본 것이고, 小篆이 전국시대를 거쳐서 완성된 秦代의 文字이므로 秦代까지를 下古로 본 것이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張懷瓘은 시대 구분을 주대를 중심으로 周代를 中古로 보고 그 이전은 上古, 그 이후 秦代까지는 下古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三古 구분과 비슷한 개념에 속한다.

④《韓非子·五蠹篇》 "中古之世, 天下大水, 而鯀禹決瀆(中古時代에 천하는 대홍수의 시대였으며, 이때 鯀과 禹 父子는 물길을 내고 치수를 수행하였다.)" "近古之世, 桀, 紂暴亂, 而湯, 武征伐,(近古時代는 바로 桀王과 紂王은 폭군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桀王은 商의 湯王이 정벌하였고, 紂王은 周의 武王이 정벌하였다.)"[15]

中古時代를 말하는 것으로 大水洪水時代이다. 즉 堯舜과 鯀禹時代를 말한다. 韓非子가 말하는 近古는 下古를 말하는 것으로 夏商周時代를 말한다. 이러한 中古와 近古의 구분은 일반적인 三古보다 올려 잡은 측면이 있다.

⑤ 《蜀都賦》"夫蜀者, 蓋兆基於上世, 開國於中古。"(무릇 촉은 상세에 터를 잡았고, 中古에 개국을 하였다.)

西晉 左思의 《蜀都賦》에 "한 사람이 지켜 막으면, 만 사람도 나아가지 못한다.(一人守隘, 萬夫莫向)"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지세가 매우 험하여, 수비하기는 쉬운 반면에, 공격하기는 어려운 요충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蜀都의 역사적 근원을 말하자면, 蜀都는 成都市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성립 시기는 일찍이 上古時代라고 말하는 것이 傳說 속에 나오는데, 온다. 古代神話傳說 속에 蜀國를 건국하고 開國한 연대는 너무 오래되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약 四万八千年 전이라고 한다. 中古時代에 秦惠王(기원전 356年－기원전 311年으로 秦惠文王 혹은 秦惠文君이라고 하며, 姓은 嬴이라고 한다.)이 蜀王를 토벌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蜀都의 역사는 깊다. 左思는 賦에서 "兆基于上世, 開國于中古"라는 열 글자를 이용하였다. 즉 여기서 上世는 전설의 시대로 자세히 논할 수 없는 오래된 시대를 말한다. 中古는 여기서는 戰國時期를 가리킨다.

近古는 下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現在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過去時代를 말하

15)《韓非子·五蠹篇》

기도 한다. 어떤 이는 近古時代는 夏와 殷이며, 歷史上의 구분으로 보면, 中古와 近世 간의 시대이다. 《辭源》에서 말하는 近古는 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대를 가리킨다. 비록 文獻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나, '古'의 가장 오래된 시대는 上古로 伏羲時代 혹은 전설시대이다. 가장 늦은 시대는 孔子時代, 혹은 戰國時代 혹은 秦代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러한 '古'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분한 문헌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上古, 中古, 下古에 대한 다양한 구분

文獻	上古	中古	下古
《禮記·禮運》	伏羲	神農	五帝
元 李治 《敬齋古今黈》	伏羲、神農, 堯、舜,	夏·殷·周	戰國時代 元以前
唐 張懷瓘 《書斷·神品》	古文 (周代 以前 혹은 周同時代)	大篆 中古 (周代)	小篆 下古 (秦代)
《韓非子·五蠹篇》		堯舜 大水 鯀禹	近古 夏末商周
晉·左思《蜀都賦》	古代神話 傳說	秦惠王 戰國時代	

위 내용을 근거로 하면 上古는 伏羲를 중심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신화의 시대까지도 갈 수 있고, 더 아래로 내려 잡으면 周代 바로 이전까지도 볼 수 있다. 中古는 周代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 훨씬 이전인 神農이나 堯舜 夏代까지도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戰國時代도 中古시대로 보기도 하였다. 下古는 五帝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면 戰國時代와 그 이후까지도 볼 수 있다.

Ⅲ. 《說文解字》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의 '古'解釋

1) 《說文解字》와 《說文解字》研究書類의 '古'

漢代 許愼의 《설문해자》와 이에 대한 교정본인《대서본》을 남긴 宋代 서현(徐鉉) , 소서본이라고 불리우는 《說文繫傳》을 쓴 徐鍇, 淸代 說文四大家라 불리는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桂馥의 《說文解字義證》,

王筠의 《說文釋例》, 《說文句讀》,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 등의 해석을 참고하여 알아보겠다.

> ① 《說文解字》“古, 故也。從十、口。識前言者也。凡古之屬皆從古。𠦂, 古文古。〖注〗臣鉉等曰：十口所傳是前言也。〖注〗圄, 古文古。”(古는 오래된 년대를 말한다. 字形은 “十、口”의 의미로 이루어진 會意字이다. 선인의 성스러운 말을 기억하는 것 혹은 사람을 말한다. 모든 古와 관련된 글자는 모두 “古”를 편방으로 삼는다. 𠦂는 古의 古文이다.)

“古”자가 會意字이며, 前代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說文解字》 연구서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② 《說文解字注》[16]“古,故也。邶風，大雅毛傳曰。古，故也。攴部曰。故，使爲之也。按故者，凡事之所以然。而所以然皆備於古。故曰古，故也。逸周書。天爲古。地爲久。鄭注尙書稽古爲同天。從十口。識前言者也。識前言者口也。至於十則展轉因襲。是爲自古在昔矣。公戶切。五部。凡古之屬皆從古。”(故라고 한다. 邶風，大雅毛傳에 이르기를 古는 “故也。”라고 하였다. 攴部에서 故는 ‘使爲之也。’라고 하여, 이것이 되도록 시키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故者에 따르면, 모든 일이 그렇게 된 까닭이 있고, 모두가 古에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古는 故이다. 逸周書[17]에서는 “天爲古。地爲久。”라고 하여, 天는 古에 이루어졌고, 地도

16) 许慎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17)《逸周書》는 原名이 《周書》이다. 《漢書》의 저자인 班固가 “《周書》는《周史記》”라고 하였고, 顔師古는 “劉向云：周時誥誓號令也, 蓋孔子所論百篇之餘也(주나라 때의 고서호령 등, 즉 주로 왕의 명령 등을 말하고, 대개 공자가 논한 백여편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逸周書》는 《尙書》와 비슷한 류로 당시의 말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 내용은 西周와 春秋時代의 약 六百年의 사적을 포함하고 있고, 위로는 周文王과 武王으로부터 아래로는 周靈王까지의 이야기이다. 《左傳》, 《戰國策》, 《史記》 및 東漢의 《說文解字》등이 《逸周書》를 인용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이 책은 先秦과 兩漢에 이미 있었던 책으로 《周書》라 하지 않고, 《逸周書》라고 하는데 이것은 《說文解字》부터 시작된 명칭이다. 이 책의 역사적 기록은 《尙書》에 없는 것이라서 《逸周書》라고 한다. 《逸周書》는 兩漢부터 晉까지 全本이었고, 晉의 五經博士인 孔晁이 이 책에 注釋까지 달았다. 그런데 후에 점차 사라져서 唐의 顔師古 때, “今之存四十五篇矣(지금 45편이 있다.)”고 하였고, 후에 三篇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孔晁가 주한 《逸周書》에는 단지 四十二篇만이 남았다.

> 오래전에 생겼다. 鄭玄은 尙書의 '稽古'를 同天이라고 주를 달았다. 十와 口의 의미를 따랐다는 것은 예전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예전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입으로 말하여, 十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계속 전하여 계승하여 내려왔다는 것이고, 이는 옛날부터 있던 것을 말한다. 반절은 公戶切이고 五部에 속하며, 古의 의미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古를 따른다.)

'稽古(옛날 일을 찾아보니)'의 古는 天과 같고, "鄭玄曰 '稽古, 同天, 言堯同於天也。"[18]라고 하여 古는 天과 같고, 堯가 天과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古란 堯시대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說文解字繫傳》 (小徐本) "古者無文字, 口相傳也。(옛날에는 문자가 없어서 입으로 서로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徐鍇의《繫傳》에서는 "옛날에는 문자가 없어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보충하여 徐鉉은 "十口所傳是前言也。"라 하고, 열 개의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예전의 말이라고 하여, 문자가 없으므로 구전으로 전해온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④ 《說文通訓定聲》[19]"《廣雅·釋詁》'始也。'(古는 시작이라는 말이다.)《古公亶父傳》'古言久也。'(古는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儀禮·士冠禮 記》'大古冠布'注 大古唐虞以上。('太古에는 모자를 베로 만들었다'의 주에 大古(=太古)는 夏禹와 有虞의 兩代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穀梁·桓三傳》'以是謂近古也. 注, 古謂五帝時。'(곡량전 환삼년 전에 以是謂近古也라고 하고, 古를 주석하여 '五帝'時라고 말했다.)《書經·康誥》'別求聞由古先哲王。(별도로 구하여 옛 先哲王의 일을 듣고서 행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보호하라.)' '鄭玄注古虞夏也。'(鄭玄의 注에서 古는 夏禹와 有虞의 兩代를 말한다.)

《說文通訓定聲》에서 인용한 해석들을 보면, '古'는 시작이며, 오래되었다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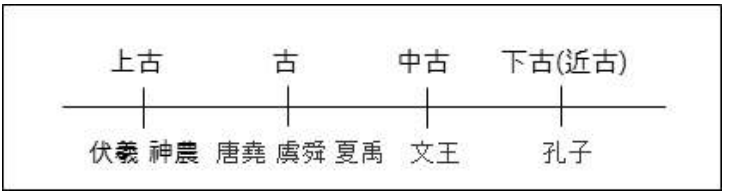
당에서 역사를 편찬할 때, 晉 때의 발견한 竹書汲塚周書와 기타의 逸周書를 혼합하여 지금의《逸周書》가 되었다. 《逸周書》는 劉向의 말에 따르면, 孔子가 《書》를 다시 편집할 때, 버린 것이라고 하였지만, 역사적인 가치면에서, 대부분은 周代 史官의 기록으로 진실성은 비교적 믿을 만하다.

18)《三國志·裴松之注》, 三國志卷四 魏書四.

19)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1983.

미, 堯舜시대, 《儀禮·士冠禮 記》의 “‘大古冠布’注 大古唐虞以上。(‘太古에는 모자를 베로 만들었다’의 주에 大古(=太古)는 陶唐氏와 有虞氏 兩代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에서 陶唐氏와 有虞氏는 곧 堯舜時代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穀梁·桓三傳》에서는 古가 五帝 때라고 하여, 五帝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三皇과 같이 설이 분분하지만, 司馬遷의 『史記·五帝本紀』에 따르면, 黃帝, 顓頊, 帝嚳, 堯, 舜이라고 하였으므로 역시 요순시대가 포함된 시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書經·康誥》의 “別求聞由古先哲王。(별도로 구하여 옛 先哲王의 일을 듣고서 행하여)”에 대하여 “鄭玄의 注는 古가 夏禹와 有虞의 兩代를 말한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와 관련한 연구서에서는 ‘古’의 뜻은 先祖, 根本, 天, 知識의 뜻으로도 확대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鄭玄注에서 우리는 古의 기준 시점을 이해할 수 있다. 三古의 上古, 中古, 下古에 대한 시점은 이해를 하였으나, 정작 그 기준이 되는 古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나, 古虞夏也를 통해 古의 기준 시점은 虞와 夏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書經》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書經》“古帝堯(古 때의 요)”, “古帝舜(古 때의 순)”, “古大禹(古 때의 대우)”,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古를 구분하면 上古, 古, 中古, 下古(近古)가 된다. 이러한 구분과 기준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古’의 區分과 基準

2) 《形音義字典》[20]에서의 ‘古’

“祖曰古則祖宗(祖를 古라고 하니 곧 祖宗인 시조가 되는 조상을 말한다.)”

20) 高树藩,《正中形音义综合大字典（增订本）》, 正中书局出版, 2005.

> “《禮記·祭義》: 乃祀山川社稷先古(예기 제의에‘이에 山川과 社稷과 先古곧 先祖께 제사를 지낸다’)”“古道,古事曰古(옛날의 다니던 길, 또는 옛날의 道義와 古事을 古라 했다.)” “《論語·術而》 : 述而不作하며 信而好古(나는 古人의 道를 서술하였을 뿐 창작은 아니 했으니 진실로 옛것을 좋아한 것이다.)” “姓, 古公亶父之後,以古爲氏.(고공단보의 후예들은 古를 氏로 삼았다.)”

위에서 말하듯이《形音義字典》에서는 古가 조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특히 주의할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3) 《康熙字典》[21]에서의 ‘古’

《康熙字典》에서는 ‘古’의 기본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의미를 수록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의 다양한 용례들을 인용하고 있다.

우선 지명이나 성씨, 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다.

> 縣:《前漢·地理志》益州郡貢古縣。(익주군분고현)
> 姓:《廣韻》周太王從邠適岐，稱古公，其後氏焉。漢有古初，蜀志有廣漢功曹古牧，北魏有古弼。(周太王는 邠에서 岐로 갔는데 古公이라고 불렀다. 후에 氏가 되었다. 漢나라 때에 古初가 있고, 蜀志 廣漢郡 에서 功曹벼슬하는 古牧이 있고, 北魏(A·D 386 - A·D 534)에는 古弼이 있었다.)《字彙補》溪姑切，音枯。古成氏，複姓。漢廣漢太守古成雲。後秦古成詵。(반절음은 溪姑切이고 音은 枯이다. 古成氏라고 하여 複姓이다. 漢나라 廣漢의 太守를 지낸 古成雲이 있고, 後秦의 古成詵이 있다.)
> 草:《爾雅·釋草》紅藣古。(홍롱고)《註》俗呼紅草爲藣鼓，語轉耳。(紅藣古는 속칭 紅草라고 부르던 것이, 藣鼓라고도 부르게 되었으니, 말이 전이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예문에서는 모두 이름으로 사용되어, 縣, 姓, 草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 용례들이다. 예를 들면, 縣 이름으로 貢古縣, 姓으로 古公, 古初, 古牧, 古弼, 古成 등, 풀이름으로 紅藣古가 있다. 그 외의 의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又《集韻》古暮切，音顧。亦作故，義同。(반절은 古暮切로 音이 顧이며, 또 故라고 하는데 뜻이 같다.)《劉向·九歎》與《離騷》之微文兮，冀靈修之壹悟。還余車於南郢兮，復往軌於初古。(《離騷》를 지어서 은밀히 군

21) 张玉书等, 《康熙字典》, 中华书局, 2004.

왕에게 경계하도록 하였고, 君王이 문득 깨달아 고치기를 바랐지. 나의 수레를 불러들여 郢都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처음 왕의 규범을 고치게 하려나.) 《爾雅·釋詁》古, 故也。(古는 故라고 한다.)《說文》從十, 口。識前言者也。(十와 口의 의미를 따르고, 앞의 이야기를 알거나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徐鉉曰》“十口所傳, 是前言也。”(열 개의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전의 말이나 이야기이다.) 《玉篇》久也, 始也。(오래된 것, 처음 시작을 고라고 한다.)《書·堯典》“曰若稽古帝堯。”(옛 요임금에 대하여 상고해 보건데) 《詩·邶風》“逝不古處。”(옛날처럼 대해주지 않는다.) 《前漢·藝文志》“世歷三古。”(삼고를 거쳐서) 《孟康曰》伏羲上古, 文王中古, 孔子下古。(복희는 상고, 문왕은 중고, 공자는 하고시대라고 한다.) 《禮·祭義》“以祀天地、山川、社稷、先古。”《註》“先古, 謂先祖也。”(天地와 山川과 社稷과 先古를 섬기고,” 《註》“先古, 謂先祖也。先古는 先祖를 말한다. 그러므로 古는 先祖를 말한다.”) 《周禮·冬官考工記》“輪已庳, 則於馬終古登陁也。”《註》“終古, 猶言常也。”(수레바퀴가 너무 낮으면, 말은 늘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 《註》“終古, 猶言常也。(終古는 항상, 영원히라는 말과 같다.)

위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처음 왕’, ‘처음 시작 때’를 의미하는 “初古”, ‘조상’이라는 의미의 “先古”, 그리고 ‘항상’, ‘영원히’라는 의미의 “終古”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대표 의미들을 추출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의 “古”解釋

《說文解字》 및 그 연구서류와 관련 字典類	古
《說文解字》	識前言者也。
《說文解字注》	堯
《說文解字繫傳》	古者無文字。
《說文通訓定聲》	堯舜夏禹
《形音義字典》	祖上
《辭源》	不趨附流俗曰古.
《康熙字典》	祖上, 先王(初古, 先古), 常, 永遠, 堯

Ⅴ. 結論

본고는 ‘古’에 대한 시대를 구분하여 上古, 古, 中古, 下古 혹은 近古로 나누고 특히 ‘古’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규명하였다. ‘古’는 문헌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시

기가 다를 수 있는데, '古'에 대한 시대적 해석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古'에 대한 해석 및 사용 용례를 집중적으로 관련 字典類와 經書類 및 歷史類 문헌에서 검색하여 살펴보았다.

上古 시대는 伏羲, 神農 시대이며, 문헌에 보면, 結繩이나 書契로 다스린 시대라고 하였으니, 문자사용 이전의 시대로 판단할 수 있다. 中古는 주로 周代 文王시대를 말하며, 문헌에 따라서는 中古 시대를 요순시대까지 올려 잡기도 하지만, '古'를 中古 이전의 시대로서 기준을 잡아 보면, 中古 시대는 周代로, '古' 시대는 堯舜시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下古는 공자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주 드물게 下古를 五帝시대, 夏末商周, 戰國時代 등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古'의 시대에 대하여, 上古(伏羲, 神農), 古(堯舜), 中古(周代), 下古(孔子)로 분류하였다. 이는 '古'를 삼등분한 上古, 中古, 下古의 분류법에서 '古'라고 하는 시점을 따로 분류하여, 그 시대를 堯舜시대로 놓고, 그 前을 上古, 그 後를 다시 中古, 下古로 분류한 점이 시대 분류의 독창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사 문헌에서 주로 문명의 최초 시작을 '古'라고 할 때, 주로 요순임금 시대를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외에 '古'의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처음 시작 때를 의미하는 "初古", 조상이라는 의미의 "先古", 그리고 '항상, 영원히'라는 의미의 "終古"가 있다. 또한, 각기 다른 '古'에 대한 문헌에 따른 해설들로부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시대 구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헌의 문맥을 잘 살펴서 '古'에 대한 시대해석을 하여야 그 시대 배경 및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야 '古'에 대한 문헌의 해석과 '古'의 시대적 해석에 대한 핵심적 의미를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

【參考文獻】

許愼撰,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高樹藩,《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增訂本) 》, 正中書局出版, 2005.
張玉書等, 《康熙字典》, 中華書局, 2004.
李圃, 《古文字詁林》, 上海敎育出版社, 2004.
李學勤, 《字源》, 天津古籍出版社, 2013.
張玉書, 陳廷敬等, 《康熙字典》, 上海商務印書館, 1990.
張舜徽, 《說文解字約注》,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9.
丁福保, 《說文解字詁林》, 中華書局出版, 1988.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武漢市古籍書店, 1983.
湯可敬, 《說文解字今釋》(東漢許愼者:湯可敬<撰>, 上海古籍出版社, 2018.
許愼 撰, 徐鉉 等 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2.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漢語大字典》, 崇文書局, 四川辭書出版社, 2018.
商務印書館編輯部等, 《辭源》(套裝全2冊), 商務印書館, 1983.
李鏡淑, 文致雄, <‘古 ’와 ‘昔’에 나타나는 時代 解釋과 區分에 한 考察>, 韓國:《漢文古典硏究》, 2019.
郭錫良, <漢語史的分期問題>,《語文硏究》, 2013.
周祖謨,《文字音韻訓詁論集》, 北京大學出版社, 2000.
高娜,《現代漢語時間副詞曆時硏究》,《湖南師範大學》,碩士, 2009.
施向東, <梵漢對音資料:從上古音到中古音>,《辭書硏究》, 2020.
張傳璽,《簡明中國古代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

http://zidian.911cha.com/zi90e8.html/新華字典(Xinhuazidian)(검색일:2019.6)
http://www.zdic.net/z/19/js/60D4.htm/漢典(Handian)(검색일:2019.6)
http://ctext.org/guanzi/shu-yan/zh: 經典(Jingdian)(검색일:2019.6)
http://hanji.sinica.edu.tw/中央硏究院漢籍電子文獻(Hanjidianziwenxian)(검색일:2019.6)
http://xh.5156edu.com: 康熙字典(Kangxizidian)(검색일:2019.1.1.)
http://www.wenxue100.com/wenxue100/Prompt.aspx:(古代文獻)(검색일:2020.6)
http://www.guoxuedashi.com:(古代文獻)(검색일:2020.6)
《易·繫辭傳》
《史記·秦始皇本紀》
《史記·項羽本紀》
元 李治《敬齋古今黈》
唐 張懷瓘《書斷·神品》
《韓非子·五蠹篇》
《三國志·裴松之注》 三國志卷四 魏書四.

【英文提要】

Consideration on the distinction of the period of Chinese characters '古'

- Meaning of 《說文解字》 and its research documents and related letters 解釋

This paper explores the upper and lower contexts of the literature, and examines the meaning that the context intends to say and the era indicated by'古'. This not only helps to objectively and concretely recognize and interpret the "old" era, it can also be used to dig deeper into the meaning of the literature.

In particular, such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n even greater role in the literature that needs to clarify historical facts. '古' can be spec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iterature.

In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ing on this point, in order to examine more closely how the periodic interpretation of'古' was done, the interpretation and usage examples of'古' were intensively examined.

Notable items in the meaning of'古' are the meanings of beginning, ancestor, always, forever, and so on. In particular, in historical literature, the first beginning of civilization was viewed as'old'. It is emphasized that the age of pay wages is viewed as the "old" at the base point.

주제어: 고, 요순, 문명, 시작, 고대문헌

古, 堯舜, 文明, 開始, 古代文獻

Ancient, Yao and Shun, civilization, beginning, ancient documents

논문투고일: 2020년 08월 09일
논문심사일: 2020년 08월 24일 ~ 0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09월 01일